

이주의 본당 소식

*본당의 새로운 소식을 알립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 미사 시작 30분 전에 함께 기도합니다. 첫 주는 성체 강복 및 조배, 2-4주는 묵주의 기도를 올리니 많은 참석 바랍니다. 2주 : 레지오단, 3주 : 전례부, 4주 : 기도회, 5주 : 구역부
- 말복 삼계탕 파티
오늘 미사 후 “말복 삼계탕 파티” 가 있습니다. 많은 참석 바랍니다. 친교에 도움을 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김광대 율리안나, 김연자 글라라, 노영순 리드비나, 방영애 레나타, 신선희 카타리나, 신용철 마태오, 윤모니카, 이상재 헬렌, 최화숙 마리아>
- 성모님 꽃 봉헌
St. Mary 성당에서 성모님 꽃 봉헌을 요청 받았습니다. 성모님께 꽃 봉헌하실 분들은 신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꽃 봉헌해 주신 분들>
안우풍 부루노
- 요가반 가을학기 수강 신청
일시 : 9월 10일(월) - 12월 10일(월)
매주 월요일 오후 8시-9시
장소 : 성당홀(친교실) 수강료 : \$30(3개월)
준비물 : 요가 매트, 간편한 운동복 차림
접수 : 문혜숙 베로니카
- 성가책 판매
수정 보완판 새 가톨릭 성가책을 판매합니다. 구입은 김재숙 제노베파 총무님께 문의 바랍니다.
* 가톨릭 성가 대 \$30, 가톨릭 성가 중 \$25
- 이집트, 이스라엘 성지 순례 13일
일시 : 2018년 11월 12일(월) - 24일(토)
비용 : \$3,780 신청비 : \$1,500
코스 : 이집트(룩소, 시나이), 이스라엘 요르단(페트라)
문의 : 윤모니카 회장님(254-289-1682)
- 우리 모두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의 은총으로 치유를 받으시기를 주님께 청합니다. 치유와 용기를 받으시기를 주님께 청하면서 양승숙 마리아, 고정림 세실리아, 방영애 레나타, 옥달영 안드레아, 박영목 다니엘, 김영순 스텔라, 최영숙 에스터, 김 레지나 그리고 장석영 요한 형제님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모두함께! 구역 소식

*구역 여러분 모두의 참여로 이루어가는 공동체입니다!

신자들의 소식 나눔터

*환영, 환송, 축하등 모든 신자들의 소식 나눔터입니다!

- 새 교우 소식
노영순 리드비나 자매님께서 새로 전입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 전시회(The Half)
권명자 율리안나 자매님의 미술 전시회가 9월 1일(토)부터 29일(토)까지 체리힐 도서관 아트 갤러리에서 있습니다.

알립니다!

- * 꽃봉헌과 미사봉헌은 이수영 에우푸라시아 자매님(484-995-9638)
- * 친교명단을 친교실에 공지하였습니다.
- * 이번달 상품권판매는 로사리아 구역 입니다.
- 이번달 친교실 청소담당은 글로리아 구역 입니다.
다음달 친교실 청소담당은 로사리아 구역 입니다.
(친교실 청소는 매달마다 돌아가면서 담당합니다)

St. Yi Yun Il John Korean Catholic Church 체리힐 한인 천주교회

주임신부: 김도운 프란치스코
평협회장: 윤모니카



2001 Springdale Rd, Cherry Hill, NJ 08003 (ST. MARY내 위치)

856-912-1355

chkcc.org

미사안내

주일 : 오후 5시
평일(목요일) : 오후 12시
치유미사(Healing Mass) :
매월 셋째 수요일 오후 7시 30분

성사안내

고백 성사 : 미사 30분 전
혼인 성사 : 3개월 전 신청
병사 성사 : 위급할 시 언제든지
유아 세례 : 1개월 전 신청

* 단체모임 안내

열린 기도회 : 매주 수요일 오후 7시 30분
예비자 교리 : 매주 일요일 오후 3시 30분
여성 레지오(평화의 모후) : 매주 목요일 오전 10시 30분
평협회 : 수시 모임, 수시 공지

오늘의 미사 전례

*미사시작 20분 전에 기도와 성사로 마음의 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입당성가	337번 미사 시작
제1독서	잠언 9, 1-6
화답송	◎ 주님이 얼마나 좋으신지 너희는 맛보고 깨달아라.
제2독서	에페소서 5, 15-20
복음 환호송	◎ 알렐루야. ○ 주님이 말씀하신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사람은 내 안에 머무르고 나도 그 사람 안에 머무르리라. ◎
복음	† 요한 6, 51-58
봉헌성가	431번 찬미의 송가
성체성가	496번 주님은 우리 사랑하셨네
퇴장성가	400번 주님과 나는



주님이 얼마나 좋으신 - 지 너희는 맛보고 깨달아라

이주의 미사전례 봉사자

주 일	연중 제20주일 8월 19일	연중 제21주일 8월 26일	연중 제22주일 9월 2일
제1독서	권명자 올리안나	권명자 올리안나	이상민 아우구스티노
제2독서	황선동 스테파노	정경제 엘리사벳	이수영 에우푸라시아
친교봉사	성모회		

오늘의 묵상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께서서는 영원한 생명을 참된 양식이며 참된 음료인 당신 몸과 피를 먹고 마시는 친교에 연결하고 계십니다. 실제로 믿음과 친교, 믿음과 성사, 믿음과 성체성사는 각각 서로를 필요로 하고 서로를 완성합니다. 몸과 피, 곧 믿음으로 받아들인 그리스도께서는 이제까지 성체를 받아 모시는 이를 위한 영원한 생명의 원천이십니다.

이는 마술도 아니고 기계적인 성사 행위도 아닙니다. 믿음 없이 성사도 없고 생명도 없으며 예수님과 이루는 친교도 없습니다. 미사에서 빵과 포도주를 축성한 뒤 환호할 때 “신앙의 신비여!”라고 표현하고, 성체를 모실 때 “그리스도의 몸. 아멘.”이라고 확신합니다. 믿음은 이를 표현하고 양육해 주는 성사의 전제 조건입니다.

예수님께서서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사람은 내 안에 머무르고, 나도 그 사람 안에 머무른다.”고 하시며, 그리스도와 사람 사이의 친교, 곧 당신 살을 먹고 당신 피를 마신다는 점을 강조하십니다. 성체성사는 아들이 아버지에게서 받은 생명을 신자에게 전해 줍니다. 그분의 살과 피를 받아 모시는 이는 삼위일체의 생명과 그리스도의 피를 통하여 사람과 하나님의 계약에 참여하게 됩니다.

‘살’에 대한 예수님의 끊임없는 언급은 사람들 가운데에 이루어진 육화의 신비로 이끌고 있습니다. 몸과 피의 지속적인 구별은 주님 생애의 양극, 곧 육화와 죽음에 대한 분명한 암시입니다. 육화와 죽음 모두 성체성사와 연결되어 있고, 예수님께서서는 성사 제정을 당신의 희생 제사적 죽음 전달에 분명하게 연결하십니다. 여기에 희생 제사와 성체성사가 지닌 복음 선포적 가치가 있기에, 우리는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주님의 죽음을 전하며 부활을 선포하나이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안봉환 스테파노 신부)

2분 교리

콘클라베라는 말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교황님께서 선종하시고 새로운 교황님을 선출하는 과정을 콘클라베라고 부릅니다. 라틴어인데, 모든 사람의 동의로 선출이 완성되고 이때 교황님이 사시는 바티칸 궁의 굴뚝에서는 흰 연기가 피어오릅니다. 새 교황님을 선출하는 동안은 철저히 출입이 통제되기 때문에 신자들은 굴뚝의 연기를 통해서만 소식을 접할 수 있습니다.

오늘의 미사지향

<연미사>

지향 : 버밀라 칸트락터의 영원한 안식을 위하여
봉헌자 : 글로리아 구역

우리들의 주일정성

< 8월 12일(일) >

봉헌금	\$520.00
미사예물	\$80.00
Total	\$600.00

< 8월 15일(수) 성모 승천 대축일 >

봉헌금	\$268.00
-----	----------